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6

각성 스님(화엄학연구원장) / 해심밀경(10월 28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박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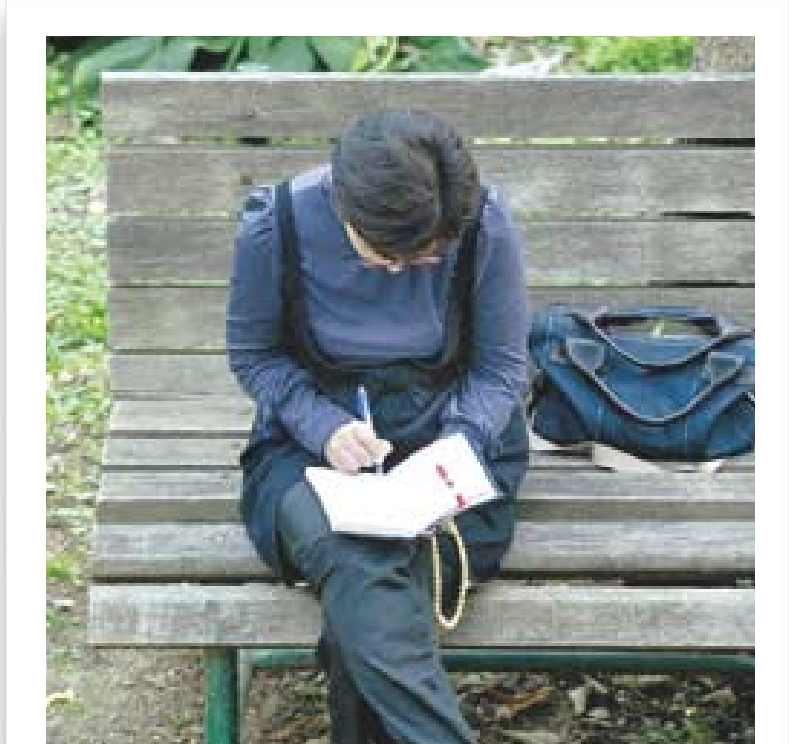
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이 없이 잘나잘 나에 변하는 것이 바로 인연이고 그 인연 자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여실히 잘 밝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원성실성은 부처의 마음자리이고 우리들의 불성자리이며, 보살이 도를 닦아 성불해서 보리 열반을 증득하는 그것입니다. <해심밀경>에는 보살이 도를 닦아 진여를 개발해서 보리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원성실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불하기 전에도 원성실성은 있는 것

망상이 부글부글 끓지요. 그래서 그런 망상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 제거하는 방법을 정지시키라고 해서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려면 일단 차를 정지 시켜야 합니다. 차를 멈추놓고 고쳐야지 달리면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지요. 우리 중생의 몸과 마음의 차가 고장이 나면 이 번뇌의 병으로 말미암아 마음병이 생기므로 일단 생각을 그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선할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도 편안하고 좋지요. 뉘 일을 하다가 무

지 털듯이 마음의 육진 번뇌 망상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털어버리라는 지법의 상정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이 바로 위빠사나입니다. 위빠사나는 쉽게 말하면 관찰하는 것입니다. 성이 날 때도 성나는 데만 마음이 달아가지 말고 왜 성을 내는가. 성내는 주체가 무엇인가 그걸 포착하려고 하는 그 힘을 갖고 관찰하는 것이 바로 위빠사나입니다. 차를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는 것이 지(止)라면 그다음에는 차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관찰해서 세밀하게 고장난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차가 고장난 것을 잘 살펴봐서 고장난 부위를 알게 되고 부속을 갈아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 병이 어디에 있는나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탐심을 고쳐야 하고 성내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성내는 마음을 고쳐야 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많은 사람은 어리석은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집도 고장 나면 수리해 새 집이 되듯이 사람 마음도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겼으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관(觀)입니다. 이 두가지 수행법을 합쳐서 지관법이라고 합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를 들면서 지관법을 수행하고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을 지극정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자연히 지관의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해심밀경>에서 가르치는 법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여러의 법을 정말 제대로 살펴보면 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심밀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을 공부하다보면 경전에서 가르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낼 때 해심밀이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공중에 누각을 세우듯 해심밀이 어떻게 하고 말을 해 봐야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조선시대때 금강산에 살던 한 스님이 서울에 와서 큰 대강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대강이 금강산의 절경을 설명해 달라는 부탁에, 직접 금강산을 가 봐야 그 절경을 알 수 있지 백반 이야기 해 봐야 실감이 나지 않고 금강산의 면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해심밀경>을 설명하는 것도 부처님의 분상(分上)에서 보면 겨우 환기통이 될 설명할까 말까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이해를 가지고 행상만 아바라말다를 터득할 때 그때 해심밀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공부는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는 것으로 속제를 남겨두니 결국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금강산을 소개하는 스님 비유를 끝으로 오늘 법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리=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단풍이 장관을 이룬 봉선사 경내에서 각성 스님의 법문을 한 구절이라도 놓칠새라 열심히 듣고 기록하는 불자의 모습이 아름답다.

입니다. 여래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우주 만법을 다 재보면 어떤 법도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세가지 표준을 가지고 모든 중생부터 보살 부처까지도 세가지 법으로 다 집약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원성실성을 제대로 통달하신 분은 부처님이시며, 보살은 나름대로 조금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전을 통해 수행하는 길을 <해심밀경>에서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타는 인도 법어인데 마음을 그치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흘러가고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잡념, 갈등, 불안, 공포, 번뇌

거운 짐을 벗어놓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몸과 마음에는 한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아집, 법집, 팔만사천 번뇌 같은 짐이 얹히고 설켜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때 어깨가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맙니다. 그것을 빨리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사선문에서는 조사들이 참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막망상(慢妄想)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망상을 모두 놓아버리라는 뜻으로 이 세글자 법문이 최상의 법문입니다. 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있고. 먼

정리=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질의

경전공부는 새끼 품는 '새둥지'와 같아



명법 스님(운문승가대학 중장)

[질문] 저는 오늘 스님의 법문을 <해심밀경>에서 이야기 하는 말할 수 없는 경계를 알기 위해 일단 경을 읽고 그 경에 대한 지표는 삼은 다음에 직접적인 수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조사선에서는 교를 버리고 수행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오늘 법문에서는 경전을 통해서 수행을 하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두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요.

모르는 것을 지적했죠. 그래서 소승 나 한들은 삼매의 숲에 취해서 깨어날 줄 모른다고 지탄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경전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마음을 통헤하는 사람에게는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전도 모르고 조사 선법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전부터 아라한들이 육신통을 얻고 삼계 윤회를 벗어나서 삼매에 도취되어 나올 줄

것죠.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 것처럼 경전공부가 굉장히 필요하고 경전공부를 어느 정도 달성한 다음에는 아는 지식의 함정속에만 파묻혀 있지 말고 그 함정까지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가 새끼를 깔려고 할 때 둥지를 만들어 그속에서 알을 낳아 품고 있습니다. 품어서 부화되어 새끼가 나오면 열심히 키워요. 새끼가 성장이 되면 새는 그 둥지를 떠나갑니다. 그 둥지에는 다시 안 살아요. 경전공부도 하나의 둥지 같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알'도 까지 않은 존재가 '둥지'부터 버리고 하면 언어도단언이 아닐까 합니다. 첫째는 둥지를 만들어 알을 까야합니다. 둥지를 만들어 놓아야알도 낳을 수 있고 새끼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새끼'를 기르고 성장시킨 후 사고입신을 해서 불교가 없는 곳에서 불법을 펼치세요. 부처가 없는 곳에서 내가 부처 노릇도 해야 하고 법이 없는 그야말로 불모지에 법을 퍼기 바랍니다.

경전 말씀대로만 충실히 하면 다 성불



안성두(동국대 강사·불교학박사)

[질문] <법화경> 등 대승경전에서는 수지, 독송, 서사, 해설의 공덕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심밀경>에서도 그 공덕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경전의 필사와 수지 독송을 넘어 포다면 핵심적인 영역이 역시 경전공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해심밀경>의 지관 법문이 다른 경전의 내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로 수행하면 그 이상 없는 것입니다. 성불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성불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 <아미타경>대로 수행하면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님처럼 성불할 수 있는 겁니다. <대승기신론> <원각경> 등 다른 경

전과 비교해서 <해심밀경>이 특색 있는 지관법을 말씀했다고 해도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조금씩 대동 소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때와 장소 그리고 청중의 근기가 어떠한에 따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소승 경전이나 제일 낮은 차원의 설법을 하셨다해도 거기에는 무공무진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도높게 설명만 안 했을 뿐이지 그 속에 전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함경>을 아함차원에서 보면 소승 경전이지만 내가 불배는 <아함경>도 대승경전이라고 보여져거든요. 보는 각도와 또 제는 학도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리=김두식 기자

성지순례 기도도량
포항. 흥해. 칠포. 대원사

용의크기: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마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대한불교 선총림 오봉산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도자기 불상 조성 전문기업 경 동 요

천불 · 삼천불 · 만불

불상크기: [자재질: 도자기(예금)]

지장 보살님, 관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여의주)

경동요는 삼보에 귀의 하는 마음으로 도자기 불상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으로 물려진 경동요는 20여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덕스님들께서 원하시는 불사에 맞추어 불상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표 천우경 합장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1리 329-1번지
● 전 화 : 031)638-4531 (주간)
031)637-8789 (야간)
● 휴대폰 : 011-765-4531

불상크기: [7치재질: 도자기(예금)]
석가모니부처님, 지장 보살님